

장성군,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확대 속도낸다

장성교육지원청과 협력체계 강화 공공급식지원센터 7월 완공 목표

장성군이 장성교육청과 푸드플랜 협력체계를 구축, 지역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 확대에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장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푸드플랜 협력체계를 다졌다. 장성지역 영양교사와 영양사, 장성교육청,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해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능력을 방문해 친환경 농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광주첨단장성로컬푸드직매장을

찾아 장성군 농산물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매장 2층 교육장으로 이동한 급식 관계자들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에 전달했다.

초등학교 급식 중 과일간식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공급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로 쓰이는 로컬푸드의 안전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며 “꾸준한 소통으로 장성교육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오는 7월 완공을 목표로 장성군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군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농산



장성군이 관내 농산물 학교급식 사용을 확대 하기위해 최근 장성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푸드플랜 협력체계를 다졌다. 장성군 제공

물을 학교급식, 복지급식 등에 공급하는 통합물류시설이다.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먹거리 종합대책 ‘푸드플랜’ 추진 등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장성=유봉현 기자

봄철 산불 예방 행정력 총동원 화순군, 소각 단속·순찰 강화

화순군이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지면서 산불 재난 단속 및 대비를 지시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군은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지고 지난 8일 기준 산불 3건 발생하는 등 산림 피해를 입었다.

군은 산불 인접지역 농업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산불취약지역 담당 공무원 지정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원 사각지대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불은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산불감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농·특산물 홍보 전문가 교육생 담양군, 선착순 20명 모집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오는 4월1일부터 농특산물 홍보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14회에 걸쳐 추진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담양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온라인 공간에서 생산자인 농업인이 홍보해 소비자의 필요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SNS 마케팅, 포털 뉴스 홍보 등 이론 교육과 기사 작성, 블로그 포스팅하기 등 실습을 병행하며 교육 이후 온라인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교육경영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조진용 기자

“화상병 발생 예방을” 전남농기원, 적기방제 당부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배·사과 재배농가에 예방과 꽃피는 시기에 따른 적기 약제 방제를 당부했다.

15일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기상상황을 기준으로 전남지역 배 개화 전 방제 적기는 3월 셋째주로 예상되고 있다. 개화 전 방제약제는 11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선정한 약제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배·사과 재배 농가에 배부하고 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배는 꽃눈이 튼 직후,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퍼지기 직전 약제를 뿌려줘야 한다. 꽃피기 전 방제에 사용하는 동제(구리 성분)가 들어 있는 농약)는 다른 약제를 섞어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개화기 전·후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화상병 예측 시스템(https://fireblight.org)을 활용해 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지역별 꽃감염 위험도 예측정보를 바탕으로 약제 품목에 따라 살포 시기 정보를 제공하는 ‘개화기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예방하고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관수 기자

‘영광에 살어리랏다’ 수기 공모 영광군, 8월11일까지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8월11일까지 ‘굴비랑 보리랑 먹고 영광에 살어리랏다- 영광군 정착 사례 수기 공모’ 한다고 15일 밝혔다.

수기는 영광에 정착한 군민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와 재미있는 에피소드 등을 모집해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성공 정착 경험을 공유하고 영광살이의 행복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 참여는 2010년 이후 타지에서 영광군으로 전입해 1년 이상 정착하고 있는 군민이면 가능하다.

원고 분량은 글자크기 10포인트·줄간격 160% 기준으로 A4용지 3~4매다.

참여자에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우수 작품은 별도 시상(최우수상 80만원·우수상 40만원)하며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칠산바다와 넓은 들판, 불갑산 등 천혜의 자연 속에 자리한 영광은 조용한 시골이지만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치기도 한다”며 “영광에 정착한 사연을 통해 함께 웃고 행복을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전남형 노인일자리 신규 추진 곡성군, 총 사업비 52억원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2023년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남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곡성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1412명으로 군비 18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2억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참여 가능했기 때문에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어르신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일자리 공백이 발생한다.

곡성군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공백을 해소하고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3월부터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상해보험 가입 및 민간 수행기관 사업 협약 등 사전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 소재원 산수유 활짝 담양군 소재원 제월당과 광풍각을 덮은 산수유 꽃이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다. 소재원은 입구부터 펼쳐진 대나무 숲과 물, 나무, 꽃 등 자연풍경과 제월당, 광풍각 등 정자가 어우러져 조선시대 특유의 정원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 소재원 제월당과 광풍각을 덮은 산수유 꽃이 여행객을 맞이하고 있다. 소재원은 입구부터 펼쳐진 대나무 숲과 물, 나무, 꽃 등 자연풍경과 제월당, 광풍각 등 정자가 어우러져 조선시대 특유의 정원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나주 문평마을 역사 테마공간 변신 정주환경 개선

돈사철거...농촌 공간 개선 중점

나주 문평 오름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확정됐다. 거북선을 제조한 나대용 장군 생가·사당이 위치한 마을로 대규모 돈사, 빈집을 철거해 역사 테마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 대상지에 문평면 오름마을이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나대용 장군의 고향, 나주 문평면 오름마을이 쾌적한 정주 환경을 갖춘 역사 테마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하게 된다. 이 사업은 축사 등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된 구역을 생활 SOC공간으로 조성해 농촌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다.

사업 대상지인 문평면 오름마을은 조선 중기 무신이자 선박 과학자인 체암(漣菴) 나대용 장군의 생가와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소충사, 봉강사가 있다.

하지만 마을 내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방문객 만족도가 낮았던 더러 주민들의 생활 고통도 15년 넘게 장기화돼왔다.

나주시는 ‘나대용 장군 소충사(전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 및 관광자원화’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문평 오름마을 농촌공간정비에 ‘나대용 장군 숲길 따라 대나무 맑은 숲길 정정 거북선 마을’을 비전으로 내년부터 2027년



菴) 나대용 장군의 생가와 장군을 기리는 사당인 소충사, 봉강사가 있다.

하지만 마을 내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으로 방문객 만족도가 낮았던 더러 주민들의 생활 고통도 15년 넘게 장기화돼왔다.

나주시는 ‘나대용 장군 소충사(전남도 기념물 제26호) 정비 및 관광자원화’ 이행에도 속도를 낸다.

문평 오름마을 농촌공간정비에 ‘나대용 장군 숲길 따라 대나무 맑은 숲길 정정 거북선 마을’을 비전으로 내년부터 2027년

까지 국비 90억원을 포함해 총 180억원(도비 27억원·시비 63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돈사 1곳(11동, 5194㎡)과 장기 방치된 빈집 3호를 철거하고 공간 재생을 위해 부지 2만3155㎡를 매입하기로 했다.

정비된 공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임시 숙소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10동(70㎡), 스마트팜·영농실습장(3200㎡), 거북선 테마 다목적 교류마당(5100㎡), 삼강오름 충효관(4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나대용 장군 생가와 교류마당, 충효관, 소충사 등을 연결하는 660m구간의 진입로 또한 이색 체험길인 ‘거북선 테마로드’(명칭)로 새롭게 정비한다.

마을 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주민 수요조사로 선정된 총 12호에 대한 집수리(자부담 50%)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나주=조대봉 박승업 기자

곡성군, 사과 다축과원 재배기술 보급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사과다축과원 재배기술 보급에 나선 방침이다.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사과 농업인의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과 일손을 구하지 못해 재배 면적을 줄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5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존의 사과 재배방식은 주간형(세장방추형)으로 수확이 늦고 수고가 높아 전정, 적과, 적엽 등 농작업에 노동력이 필요했다.

최근 도입되는 다축수형은 나무 벽을 만들어 수형을 단순화함으로써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수형이다.

사과 다축재배기술은 주간형(세장방추형) 수형과 재배법이 달라 기존 사과농가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운 수형이다. 농업 현장에서 기술이 안정정착을 위해 농업인들이 재배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곡성군은 다축재배 관심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사과 다축재배 이론 교육과 견학을 추진한다. 곡성=김대영 기자